

# 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학술지 발행기관

---

##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무료 DB : KCI

##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성별에 따른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 효과 검증\*

장혜지<sup>†</sup>      조은경<sup>‡</sup>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란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해자의 음주는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음주 이중잣대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 136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음주(음주 vs. 비음주), 가해자 음주(음주 vs. 비음주), 피해자 성별(남성 vs. 여성)을 조작한 성폭력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음주한 조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안정성 평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음주한 조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통제 평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음주 이중잣대의 존재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피해자 음주와 피해자 성별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는 술에 취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통제 및 안정성 평가를 받은 반면, 남성 피해자에게는 음주 상태에 따른 비난 귀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 귀인에 영향을 미쳐 음주 이중잣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 비난 귀인, 성범죄, 음주, 피해자 성별

\* 이 논문은 장혜지의 2025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장혜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 E-mail: djan0516@naver.com

‡ 교신저자: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2260-3254, E-mail: ekjo@dongguk.edu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외, 2014). 성폭력 피해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형태의 이중피해(double victimization)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약성이 두드러진다(이윤호, 2020). 1차 피해는 가해자의 범죄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이며, 2차 피해는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사회적 대응 속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를 의미한다(정주호, 2020). 피해자들은 1차 피해 이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재판 결과로 인해 안전 확보와 자기존중감 회복에 실패하거나 피해자 비난, 피해의 사소화 등에 노출되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이윤호, 2020).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비난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2024년 여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이를 주변에 알린 응답자 중 76.9%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구체적인 피해 양상으로는 피해의 사소화(40.3%), 가해자 합의/용서 권유(18.3%), 가해자 옹호(17.5%), 피해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14.6%)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는 주변 반응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Grubb & Turner, 2012). 그중에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는 비난 귀인과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목 되

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상황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자에게는 면책의 근거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Grubb & Turner, 2012; Richardson & Campbell, 1982; Stormo et al., 1997; Cameron & Stritzke, 2003). 즉, 피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고 비난을 가하는 반면,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에는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음주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상반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로 해석될 수 있다(Cameron & Stritzke, 2003; 장혜지, 조은경, 2025).

이러한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는 모든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기보다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음주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의 음주는 무책임하거나 성적으로 개방된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Dumbili, 2022; Martín del Campo-Navarro et al., 2024). 이에 따라 여성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의 도덕성이나 성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서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de Visser & McDonnell, 2012). 반면 남성 피해자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즉,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음주 행위에 대해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

게 지닌 사람일수록 이중적인 잣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거나 그 발생 기제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혜지와 조은경(2025)의 연구는 국내 맥락에서 강간 사건과 폭행 사건을 비교하여 음주 이중잣대가 성폭력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음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발생한 근본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음주 이중잣대가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비난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의미한다(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외, 2014).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심각하여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대하게 처벌되어왔다(박상옥, 김대휘,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 부위의 상처, 두통, 수면장애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우울, 두려움, 자살 사고 등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Dworkin et al., 2017).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를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물리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 비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윤호, 2020).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Lerner, 1980). 피해자학은 피해자와 비피해자 간의 차이와 그 원인에 주목해왔는데, 이는 곧 피해자도 일정 부분 가해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의 개념으로 이어졌다(이윤호, 2020; 이재영, 2019). 책임 공유란 피해자가 위험한 인물을 피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범죄를 유발한 피해자의 특정 행동이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결국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논리로 귀결된다.

즉,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하지 않은 다른 여성들과 행동이나 태도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에 기반한다(이윤호, 2020). 피해자의 특정한 행동이나 생활방식이 폭력적 성향의 남성을 자극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인식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Workman & Freeburg, 1999; 양동욱 외, 2012)이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판단(Davies et al., 2008; Mitchell et al., 2008) 등이 대표적인 피해자 비난의 사례로 지적된다.

피해자 비난에 노출된 피해자는 심각한 심

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등 법적 대응 자체를 단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Wilson et al., 2022; Grubb & Turner, 2012).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개입될 경우,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법적 판단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Stormo et al., 1997). 이처럼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비난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피해자의 음주가 비난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피해자의 음주 섭취가 연구 되어왔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보고하였다(Scronce & Corcoran, 1995; Sims et al., 2007; Brown et al., 2018; Wenger & Bornstein, 2006). 이는 성폭행 당시 음주한 피해자가 ‘이상적’ 혹은 ‘정당한’ 피해자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Christie, 1986; Koski, 2002). Christie(1986)는 피해자 경험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이상적 피해자’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쉽게 완전하고 정당한 피해자라는 지위를 부여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적인 피해자의 조건으로는 피해자가 약자일 것,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가해

자와 무관한 관계일 것 등이 제시되었다. Koski(2002)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배심원들이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피해자를 ‘정당한 피해자’로 인식할 때 가해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피해자의 행동이나 사건 당시 상황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는지가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음주 섭취는 피해자가 이상적이고 정당한 피해자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난과 책임을 귀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Bieneck와 Krahé(2011)는 강간과 강도 사건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음주 정보가 책임 판단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더 많이 비난받고 가해자는 덜 비난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가 이상적인 피해자의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 비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피해자의 저항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물리적 강제력 사용 등 피해자의 이상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작용하는지를 탐색해 왔다. Sims 외(2007)는 피해자의 음주 여부와 저항 유형을 함께 조작하여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자의 저항 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외(2018)

는 기존 연구에서 피해자의 저항 수준이 미묘하게 조작되고 가해자의 무력 사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피해자의 음주와 가해자의 물리적 강제력 사용을 함께 고려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조건과 가해자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각각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여부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두 변인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cronce와 Corcoran(1995)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를 더 부주의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가해자와 아는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를 강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Wenger와 Bornstein(2006)의 연구에서도 피해자의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가해자의 유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 역시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배심원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피해자의 음주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이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피해자의 음주와 다른 요인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음주는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일관되게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음주가 비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나 상황적 조건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

한편,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가해자의 음주 상태와 함께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목할 점은 동일한 음주 행위라 하더라도 그 주체에 따라 비난 귀인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음주와 가해자의 음주는 서로 상반된 방식으로 비난 귀인에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ichardson & Campbell, 1982; Cameron & Stritzke, 2003; Norris & Cubbins, 1992; Stormo et al., 1997). 가해자의 음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는 반면, 피해자의 음주는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인식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Richardson과 Campbell(1982)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여부가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되고 가해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되었으나,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및 비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Cameron과 Stritzke(2003) 또한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키고, 가해자의 음주는 가해자 비난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음주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상반된 기준이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는 비난 및 책임 귀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평가나 배심원 판단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ris와 Cubbins (1992)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여부가 이들의 행동과 특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음주한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유혹적이고 부주의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Schuller와 Wall(1998)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성폭력 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 정보가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lippenstine 외(2007)는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평가자의 성별에 주목하고 그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의 성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가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남성 참가자는 여성 참가자보다 피해자의 음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는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가해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대한 정보 해석이 평가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별이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는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 귀인과 비난 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해자의 음주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 수준을 경감시키는 면책 사유로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키고, 가해자의 음주가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Double Standard of Alcohol Use, 음주 이중잣대)’로 정의하였다(장혜지, 조은경, 2025).

기존 연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가 비난 귀인에 상이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심리적 기제의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Klippenstine 외(2007)의 연구를 제외하면, 음주 이중잣대의 작동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가 등장하는 고정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음주 이중잣대가 여성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일반화될 수 있는 현상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Richardson & Campbell, 1982; Stormo et al., 1997; Cameron & Stritzke, 2003). 따라서 음주 이중잣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 귀인 이론

음주 이중잣대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원인을 귀인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회

심리학의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은 사람들이 타인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고 해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귀인은 개인의 성격, 태도, 능력 등과 같은 내재적 특성에 원인을 돌리는 내적 귀인과,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외적 요인에 원인을 돌리는 외적 귀인으로 구분된다(Heider, 1958). 또한 Weiner(1986)는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평가할 때 위치(locus), 안정성(stability),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의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귀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원인이 개인 내부로 귀인되고,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될수록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귀인의 방식은 특정 행동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책임 및 비난 귀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주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범죄 책임을 피해자의 내적 특성에 과도하게 귀인하고 상황적 요인을 간과하는 귀인 과정의 오류로 설명될 수 있다(노성호 외, 2018).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상황적 맥락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의 내적인 성향에 쉽게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로 알려져 있다(Jones & Harris, 1967). 예컨대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한 성향이나 유혹적인 성격이 범죄를 유발했다는 내적 귀인이 가능해져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술의 영향이라는 외적 귀인으로 이어져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Bineck & Krahé, 2011). 이처럼 동일한 음주 상황이라 하더라도 평가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비난 귀인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이 피해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란 세상이 본질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며, 누구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Lerner, 1980). 이러한 믿음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세상이 불공정하고 타인이 부당하게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개인은 자신 역시 예기치 못한 고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Lerner & Miller, 1978). 이에 따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겪은 피해자에게도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유지하고자 한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가혹한 현실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용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통제력을 느끼고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도록 돕는다(Furnham,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고나 강간 사건의 피해자, 암 환자, 장애인, 에이즈 환자 등 다양한 범주의 피해자 비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Furnham & Procter, 1992; Kleinke & Meyer, 1990). Furnham과 Procter(1992)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에이즈 환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해 보다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einke와 Meyer(1990)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강간 피해자에 대한 평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강간 피해자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와 같은 불공정한 사건을 목격할 때 자신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로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사실은 책임 전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음주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강화시킬 수 있다(Richardson & Campbell, 1982).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피해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지적 프레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가 피해자 프레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음주한 피해자는 피해자 성별과 상관 없이 음주하지 않은 피해자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즉, 남성 피해자의 음주 또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음주 이중잣대의 핵심 기제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과 비난 귀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사건을 해석할 때 기준에 가지고 있던 일반화된 지식과 믿음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스키마 기반 정보 처리 방식(schema-based processing)으로 설명된다(Kunda, 1999). 이러한 스키마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보 해석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행동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정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평가자의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성폭력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스키마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주에 대해 성적 이중잣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e Visser & McDonnell, 2012). 남성의 음주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일탈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Dumbili, 2022; Martín del Campo-Navarro et al., 2024). 반면 여성의 음주는 절제와 단정함 등 전통적인 여성성과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과도한 음주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식되기 쉽다(Aresi et al., 2023; Dumbili, 2022; Aresi et al., 2025).

이러한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음주 사실의 해석과 비난 판단을 달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음주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 반면, 여성 피해자의 음주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비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음주를 다르게 평가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음주 이중잣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 비난 수준을 높이는 반면, 남성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 비난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음주 이중잣대의 양상이 달라진다면, 이는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가 등장하는 고정된 시나리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주 이중잣대가 피해자라는 역할 때문인지,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인지를 구분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의 성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음주 이중잣대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과 같은 심리적 기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피해자가 음주하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자 비난 귀인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 가해자가 음주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해자 비난 귀인이 낮을 것이다.

**가설 3.**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가 음주했을 때 피해자가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피해자 비난 귀인이 높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피해자 음주에 따라 피해자 비난 귀인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4.**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해자가 음주했을 때 가해자가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해자 비난 귀인이 낮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가해자 음주에 따라 가해자 비난 귀인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5.**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은 피해자 음주와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방 법

### 참가자

이 연구의 대상은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이었다. 참가자 모집은 교내 게시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한국 시민의 법 감정 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공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78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었다. 이 중 조작점검 문항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4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연구 설계 및 절차

이 연구의 실험은 2(피해자 음주: 음주 vs. 비음주)와 2(가해자 음주: 음주 vs. 비음주)와 2(피해자 성별: 여성 vs. 남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 x 2 x 2의 참가자 간 설계이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이 조작된 8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어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실험은 다음의 순서를 따라 대면으로 시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한 뒤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여에 동

의하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고, 무작위로 할당된 조건에 따라 하나의 성폭력 사건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 제시 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어서 조작검증 문항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남성과 여성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도 응답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한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읽는 것을 끝으로 실험이 종료되었다. 이 연구는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DUIRB-2024-10-09).

## 시나리오

사건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7. 선고 2014고합215 판결을 연구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원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직장 동료가 남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외부의 방해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간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각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피해자 비난 유발 요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독립변인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비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인을 통제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수록 피해자 비난 수준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에서는 두 인물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상호작용

은 최소화하여 묘사하였다(Bell et al., 1994; Scronce & Corcoran, 1995).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는 시나리오에 “만취 상태가 되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조작하였다. 피해자의 성별은 시나리오 내에서 “피해자(여)” 또는 “피해자(남)”으로 명시하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예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측정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귀인이다. 비난 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문항을 사용하였다(Viki et al., 2004; Bieneck & Krahé, 2011; Richardson & Campbell, 1982; 장혜지, 조은경, 2025). 비난 수준은 “피고인 A(가해자)/피해자 B가 비난 받아야 할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A(가해자)/피해자 B가 사건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는 “피고인 A(가해자)/피해자 B가 상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안정성 정도는 “피고인 A(가해자)가 다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B가 다른 상황에서도 범죄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매우 적게, 7 = 아주 그렇다/매우 많이)로 응답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 귀인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참가자들이 시나리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와 독립변인이 실험 설계대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 4개의 조작검증 문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 및 피해자의 성별 등 실험 조건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김은하 외, 2017). 이 척도는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남성/여성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라는 문항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참가자들은 7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부자연스럽다, 7 = 매우 자연스럽다)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별의 음주 행위가 자연스럽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피해자 음주,

가해자 음주, 피해자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피해자 음주가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총 178명의 참가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조작검증 문항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42명을 제외한 1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참가자 중 남성은 44명(32.4%), 여성은 92명(67.6%)이었으며, 참가자 연령은 평균 25.79세( $SD = 7.74$ )이었다.

종속변인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문항들의 점수는 평균 1점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자 비난 문항은 평균 1.10( $SD = 0.30$ )으로 최솟값인 1점에 매우 근접하였다. 피해자 책임은 평균 1.24( $SD = 0.69$ ), 피해자 통제는 평균 1.68( $SD = 0.93$ )으로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낮은 평균을 보였으나, 피해자 안정성 문항의 평균은 2.26( $SD = 1.04$ )으로 다른 피해자 관련 문항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문항들의 점수는 평균이 6점대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비난( $M = 6.79, SD = 0.54$ )과 책임 문항( $M$

표 1.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종속변인	M	SD
피해자 비난	1.10	0.30
피해자 책임	1.24	0.69
피해자 통제	1.68	0.93
피해자 안정성	2.26	1.04
가해자 비난	6.79	0.54
가해자 책임	6.83	0.87
가해자 통제	6.03	1.23
가해자 안정성	6.21	1.08

= 6.83,  $SD = 0.87$ )은 최댓값인 7점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으며, 가해자 통제( $M = 6.03$ ,  $SD = 1.23$ )와 안정성( $M = 6.21$ ,  $SD = 1.08$ )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후질문지에서 측정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수는 평균 4.26( $SD = 0.89$ ), 범위는 2.19에서 6.63 사이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음주에 대한 자연스러움 인식을 측정한 결과, 남성의 평균이 3.94( $SD = 1.75$ ), 여성의 평균이 3.58( $SD = 1.69$ )로, 대체로 중간 수준의 자연스러움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 피해자 음주와 성별에 따른 비난 귀인의 차이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성별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따라 피해자 비난 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illai's trace = .121,  $F(4, 129) = 4.641$ ,  $p = .002$ ,  $\eta^2 = .121$ ).

일변량 분석 결과, 피해자 음주 상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비난 수준( $F(1, 132) =$

7.166,  $p = .008$ ,  $\eta^2 = .051$ )과 사건 원인의 안정성( $F(1, 132) = 11.389$ ,  $p = .001$ ,  $\eta^2 = .079$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난 문항의 경우, 피해자가 음주한 조건( $M = 1.16$ ,  $SD = 0.37$ )이 음주하지 않은 조건( $M = 1.03$ ,  $SD = 0.17$ )보다 비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사건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M = 2.54$ ,  $SD = 0.95$ )가 음주하지 않은 경우( $M = 1.97$ ,  $SD = 1.05$ )에 비해 사건의 원인을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사건의 원인을 더 지속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음주한 조건이 비난 귀인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다변량 분석에서 피해자의 음주와 피해자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illai's trace = .079,  $F(4, 129) = 2.763$ ,  $p = .030$ ,  $\eta^2 = .079$ ). 일변량 분석 결과,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 $F(1, 132) = 5.091$ ,  $p = .026$ ,  $\eta^2 = .037$ )와 사건 원인의 안정성( $F(1, 132) = 4.680$ ,  $p = .032$ ,  $\eta^2 = .034$ )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가 음주한 조건( $M = 1.79$ ,  $SD = 0.81$ )이 음주하지 않은 조건( $M = 1.35$ ,  $SD = 0.65$ )에 비해 상황을 더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사건 원인의 안정성 역시 음주한 피해자( $M = 2.79$ ,  $SD = 0.95$ )가 음주하지 않은 피해자( $M = 1.85$ ,  $SD = 1.02$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피해자 음주 상태에 따른 통제 및 안정성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특히 여성 피해자가 음주했을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사건의 원인이

표 2. 피해자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 비난 귀인의 차이 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변량 검정			일변량 검정					
		F	p	$\eta^2$	SS	df	MS	F	p	$\eta^2$
피해자 음주(A)	비난				.596	1	.596	7.166	.008	.051
	책임				.596	1	.596	1.246	.266	.009
	통제	4.641	.002	.121	.265	1	.265	.318	.574	.002
	안정성				11.184	1	11.184	11.389	.001	.079
피해자 성별(B)	비난				.007	1	.007	.088	.767	.001
	책임				.066	1	.066	.138	.710	.001
	통제	.636	.638	.019	1.441	1	1.441	1.732	.190	.013
	안정성				.596	1	.596	.607	.437	.005
A * B	비난				.184	1	.184	2.212	.139	.016
	책임				1.243	1	1.243	2.600	.109	.019
	통제	2.763	.030	.079	4.235	1	4.235	5.091	.026	.037
	안정성				4.596	1	4.596	4.680	.032	.034
오차	비난				10.971	132	.083			
	책임				63.088	132	.478			
	통제				109.824	132	.832			
	안정성				129.618	132	.982			
전체	비난				175.000	136				
	책임				275.000	136				
	통제				498.000	136				
	안정성				839.00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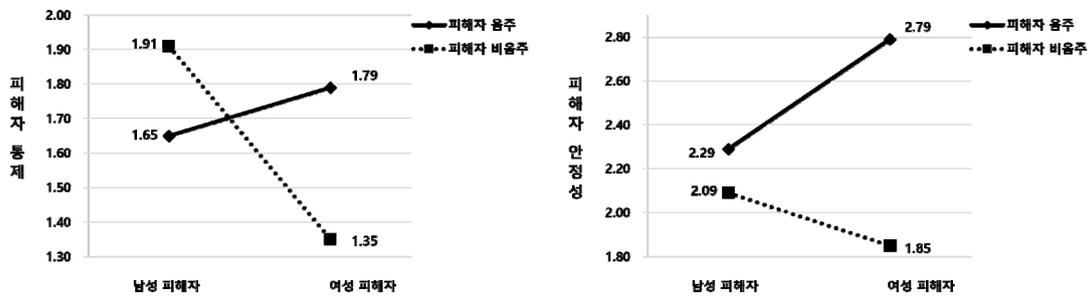


그림 1. 피해자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에 따라 피해자 비난 귀인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해자 음주와 피해자 성별에 따른 비난 귀인의 차이

가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이 가해

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 따라 가해자 비난 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illai's trace = .105,  $F(4, 129) = 3.798, p = .006, \eta^2 = .105$ ).

일변량 분석 결과,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F(1, 132) = 4.598, p = .034, \eta^2 = .034$ )과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

표 3. 가해자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 비난 귀인의 차이 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변량 검정			일변량 검정					
		<i>F</i>	<i>p</i>	$\eta^2$	<i>SS</i>	<i>df</i>	<i>MS</i>	<i>F</i>	<i>p</i>	$\eta^2$
가해자 음주(A)	비난	3.798	.006	.105	.066	1	.066	.232	.631	.002
	책임				3.243	1	3.243	4.598	.034	.034
	통제				9.529	1	9.529	6.523	.012	.047
	안정성				1.654	1	1.654	1.393	.240	.010
피해자 성별(B)	비난	1.894	.115	.055	.890	1	.890	3.117	.080	.023
	책임				2.125	1	2.125	3.013	.085	.022
	통제				1.059	1	1.059	.725	.396	.005
	안정성				.184	1	.184	.155	.695	.001
A * B	비난	1.137	.342	.034	.184	1	.184	.644	.424	.005
	책임				2.654	1	2.654	3.764	.055	.028
	통제				.471	1	.471	.322	.571	.002
	안정성				.184	1	.184	.155	.695	.001
오차	비난				37.676	132	.285			
	책임				93.088	132	.705			
	통제				192.824	132	1.461			
	안정성				156.794	132	1.188			
전체	비난				6303.000	136				
	책임				6447.000	136				
	통제				5148.000	136				
	안정성				5409.000	136				

( $F(1, 132) = 6.523, p = .012, \eta^2 = .047$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음주한 조건( $M = 6.68, SD = 1.20$ )이 음주하지 않은 조건( $M = 6.99, SD = 0.12$ )보다 가해자 책임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통제 가능성 평가 또한 가해자가 음주한 조건( $M = 5.76, SD = 1.29$ )이 음주하지 않은 조건( $M = 6.29, SD = 1.11$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에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 수준과 사건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해자가 음주했을 때 비난 귀인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한편, 다변량 분석에서 가해자 음주 상태와 피해자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Pillai's trace = .034,  $F(4, 129) = 1.137, p = .342, \eta^2 = .034$ ).

조절 효과 분석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음주 이중잣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음주와 피

해자 비난 귀인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PROCESS macro(Model 1)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변수는 평균 중심화하여 투입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과 다중공선성 상태를 검토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7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1.5 이상 2.5 이하를 만족하여 잔차 간 자기상관 문제는 없었다. 공선성 통계량 분석 결과, 모든 예측변수의 공차(Tolerance)는 .90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03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 126) = 4.65, p = .004, R^2 = .10$ ). 피해자 음주 상태와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 간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졌으며( $B = .442, SE = .173, p = .012$ ), 조절 효과의 설명력은 약 4.7%로 확인되었다( $\Delta R^2 = .047, F = 6.54, p = .012$ ). 단순 효과 분석 결과, 남성의 음주를 여성보다 더 자연스럽게 인식한 참가자에게는 피해자 음주가 피해자 비난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

표 4.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 효과

예측변인	B	SE	t	p	95% CI
상수	1.642	.165	9.941	< .001	[1.3154, 1.9693]
피해자 음주(A)	-.369	.231	-1.599	.112	[-0.8260, 0.0876]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B)	-.139	.125	-1.112	.268	[-0.3860, 0.1083]
A * B	.442	.173	2.557	.012	[0.1000, 0.7843]
상수	1.555	.038	41.507	<.001	[1.4807, 1.6289]
피해자 음주 (A)	.203	.075	2.710	.008	[0.0549, 0.3513]
정당한 세상 믿음 (B)	-.003	.003	-1.052	.295	[-0.0080, 0.0024]
A * B	.001	.005	.172	.864	[-0.0095, 0.0113]

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음주를 동일하게 자연스럽다고 인식한 참가자에게서는 피해자 음주가 피해자 비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이 피해자 음주와 비난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었다.

한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F(3, 132) = 2.74, p = .046, R^2 = .059$ ), 피해자 음주 상태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B = .001, SE = .005, p = .864$ ). 따라서 참가자가 지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피해자 음주와 피해자 비난 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이 연구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음주는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해자의 음주는 가해자 비난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로 정의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음주 이중잣대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검토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가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키는지(가설 1), 가해자의 음주가 가해자 비난을 감소시키는지(가설 2), 피해자의 음주와 피해자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지(가설 3), 가해자의 음주와 피해자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가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지(가설 4)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음주 이중잣대가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음주와 비난 귀인 간 관계를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가설 5). 이를 위해 피해자의 음주, 가해자의 음주, 피해자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통제, 안정성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음주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안정성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가설 1을 지지하였다. 둘째, 가해자 음주는 가해자의 책임과 통제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셋째, 피해자 음주는 피해자의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피해자 통제와 안정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넷째, 가해자 음주와 피해자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섯째,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은 피해자 음주와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가 지지되었다.

이 연구는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비음주한 경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수준과 사건 원인의 안정성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 귀인이 낮아지고 상황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반복 검증으로서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 이중잣대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ichardson & Campbell, 1982; Sims

et al., 2007; Brown et al., 2018; Wenger & Bornstein, 2006).

이러한 이중잣대는 단순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양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양형위원회, 2022). 그럼에도 실제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음주가 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정황은 피해자의 잘못을 확대 해석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이렇듯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에 대한 상반된 기준은 실제 양형 등의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이 사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실제로 2021년 강간죄로 1심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음주한 비율은 약 55.1%, 피해자가 음주한 비율은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에 대한 이중잣대가 개입될 경우,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가해지고 가해자의 책임은 부당하게 경감되는 등 공정한 판단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대중, 수사기관,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편향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음주 상황에서의 이중잣대가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를 명확히 밝히고자 피해자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가 등장하는 시나리오만 사용하여 음주 이중잣대가 단순히 ‘피해자’라는 역할 때문인지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을 조작하여 음주 이중잣대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성별과 음주 상태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피해자 비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음주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안정성 평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남성 피해자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음주가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성 피해자에게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 이중잣대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같은 보편적인 피해자 프레임보다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성별화된 고정관념에 기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였다.

피해자 성별에 따라 음주 이중잣대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의 음주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음주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음주는 전통적인 여성성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며, 과도한 음주는 성적 개방성이나 무책임함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Aresi et al., 2025). 반면 남성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비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Martín del Campo-Navarro et al., 2024; Dumbili, 2022). 따라서 특히 여성 피해자의 음주는 남성 피해자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엄격한 시선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비난 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음주와 비난 귀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남성의 음주를 여성보다 더 자연스럽게 인식한 참가자의 경우, 피해자가 음주한 조건이 음주하지 않은 조건보다 피해자 비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만취를 동등하게 인식한 참가자에게서는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피해자 비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피해자 음주와 비난 귀인 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음주 이중잣대가 피해자 일반에 대한 보편적 도식보다는 행위자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성별화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심리적 편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사실이 여성 피해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 피해자의 음주에 대한 시선이 남성보다 훨씬 엄격할 경우, 음주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판단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려는 여성 피해자에게 이중 낙인을

찍우며, 결과적으로 신고율 저하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주한 피해자, 특히 여성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음주 이중잣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조작한 반면,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으로 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여성인 조건은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 시나리오였으며, 피해자가 남성인 조건은 남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죄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범죄 유형 차이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성별도 함께 조작하여 다양한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가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나리오에서 음주 조건과 비음주 조건 간의 서술 방식 차이로 인해 비음주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음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 조건에서는 만취 또는 음주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포함되었으나, 비음주 조건에서는 단순히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는 실제 판결문의 서술 방식과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사건이 늦은 시간에 발생했다는 정보 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비음주 조건에서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체 참가자의 약 24%가 조작검증 문항에 오답을 제시하여 결측 처리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비음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경우였다. 이는 비음주 조건에서 음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비음주 상태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음주 조건에서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명확히 서술하여 조작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의 성별이 비난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피해자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여, 음주 이중잣대를 근본적인 성적 고정관념에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 결과 여성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 비난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피해자의 음주는 피해자의 비난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공정한 판단을 왜곡하는 성별화된 편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책임 판단에 부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실무 지침이 필요하며, 음주한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성호, 권창국, 김연수, 박종승 (2018). *피해자학(제2판)*. 그린.
- 박상옥, 김대휘 (2020). *주석 형법 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 양형위원회 (2022). *성범죄 양형기준*.
- 이운호 (2020). *피해자학(제2판)*. 박영사.
- 이재영 (2019). 언론보도에 나타난 여성 범죄 피해자 비난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3), 153-184.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
- 장혜지, 조은경 (2025). 범죄유형에 따라 음주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6(1), 89-109.
- 정주호 (2020). *피해자학*. 백산출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1): 성폭력 범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Aresi, G., Cleveland, M. J., Beccaria, F., & Marra,

- E. (2023). Variations in acceptability of heavy alcohol use and gender double standards across drinking cultures. A U.S.A. - Italy study.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22(3), 516-532.  
<https://doi.org/10.1080/15332640.2021.1956391>
- Aresi, G., Cerioli, G.A., Tomczyk, S. et al. (2025). The stigma of alcohol use among young women in a mediterranean drinking culture: A qualitative study. *Sex Roles*, 91(5), 1-13.  
<https://dx.doi.org/10.1007/s11199-025-01571-9>
- Bell, S. T., Kuriloff, P. J., & Lottes, I. (1994). Understanding attributions of blame in stranger rape and date rape situations: An examination of gender, race, identification, and students' social perceptions of rape victi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9), 1719 - 1734.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4.tb01571.x>
- Bieneck, S., & Krahé,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https://doi.org/10.1177/0886260510372945>
- Brown, A. L., Horton, J., & Guillory, A. (2018). The impact of victim alcohol consumption and perpetrator use of force on perceptions in an acquaintance rape vignette. *Violence and Victims*, 33(1), 40-52.  
<https://doi.org/10.1891/0886-6708.VV-D-16-00099>
- Cameron, C. A., & Stritzke, W. G. K. (2003). Alcohol and acquaintance rape in Australia: Testing the presupposition model of attributions about responsibility and bla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5), 983-1008.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3.tb01935.x>
- Christie, N. (1986). The ideal victim. In E. A. Fattah (Ed.), *From crime policy to victim policy: Reorienting the justice system* (pp. 17-30). Macmillan.
- Davies, M., Rogers, P., & Bates, J.-A. (2008). Blame toward male rape victims in a hypothetical sexual assault as a function of victim sexuality and degree of resistance. *Journal of Homosexuality*, 55(3), 533-544.  
<https://doi.org/10.1080/00918360802345339>
- de Visser, R. O., & McDonnell, E. J. (2012). 'That's OK. He's a guy': a mixed-methods study of gender double-standards for alcohol use. *Psychology & Health*, 27(5), 618-639.  
<https://doi.org/10.1080/08870446.2011.617444>
- Dumbili, E. W. (2022). Doing gender, doing alcohol: The paradox of gendered drinking practices among young Niger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311, 115349.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22.115349>
- Dworkin, E. R., Menon, S. V., Bystrynski, J., & Allen, N. E. (2017).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6, 65-81.  
<https://doi.org/10.1016/j.cpr.2017.06.000>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 795-817.  
[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072-7](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072-7)
- Furnham, A., & Procter, E. (1992). Sphere-specific Just World Beliefs and attitudes to AIDS. *Human Relations, 45*(3), 265-280.  
<https://doi.org/10.1177/001872679204500303>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https://doi.org/10.1016/j.avb.2012.06.002>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hn Wiley & Sons Inc.  
<https://doi.org/10.1037/10628-000>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24.  
[https://doi.org/10.1016/0022-1031\(67\)90034-0](https://doi.org/10.1016/0022-1031(67)90034-0)
- Kleinke, C. L., & Meyer, C. (1990). Evaluation of rape victim by men and women with high and low belief in a just world.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3), 343-353.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0.tb00024.x>
- Klippenstine, M. A., Schuller, R. A., & Wall, A.-M. (2007).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The expression of gender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target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11), 2620-2641.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7.00273.x>
- Koski, D. D. (2002). Jury decisionmaking in rape trials: A review and empirical assessment. *Sex Offender Law Report, 3*(3), 33-48.
- Kunda, Z. (1999).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The MIT Press.
- Lerner, M.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Plenum.  
<https://doi.org/10.1007/978-1-4899-0448-5>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1051.  
<https://doi.org/10.1037/0033-2909.85.5.1030>
- Martín del Campo-Navarro, A. S., Cervera-Vallejos, M. F., Medina Quevedo, P., Álvarez-Aguirre, A., & Fuentes-Ocampo, L. (2024). Influ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on alcohol consumption in young people: A scoping review. *Aquichan, 24*(2), Article e2424.  
<https://doi.org/10.5294/aqui.2024.24.2.4>
- Mitchell, D., Angelone, D. J., Kohlberger, B., & Hirschman, R. (2008). Effects of offender motivation, victim gender, and participant gender on perceptions of rape victims and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9), 1564-1578.  
<https://doi.org/10.1177/0886260508323662>
- Norris, J., & Cubbins, L. A. (1992). Dating, drinking, and rape: Effects of victim's and assailant's alcohol consumption on judgments of their behavior and trai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2), 179-191.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2.tb00248.x>
- Richardson, D., & Campbell, J. L. (1982). Alcohol and rape: The effect of alcohol on attributions of blame for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3), 468-476.

- <https://doi.org/10.1177/0146167282083013>  
Schuller, R. A., & Wall, A.-M. (1998). The effects of defendant and complainant intoxication on mock jurors' judgments of sexual assaul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555-573.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8.tb00177.x>
- Scronce, C. A., & Corcoran, K. J. (1995). The influence of the victim's consumption of alcohol on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Violence Against Women*, 1(3), 241-253. <https://doi.org/10.1177/1077801295001003004>
- Shaver, P., Furman, W., & Buhrmester, D. (1985). Transition to college: Network chang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S.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93-219). Sage Publications.
- Sims, C. M., Noel, N. E., & Maisto, S. A. (2007). Rape blame as a function of alcohol presence and resistance type. *Addictive Behaviors*, 32(12), 2766-2775. <https://doi.org/10.1016/j.addbeh.2007.04.013>
- Stormo, K. J., Lang, A. R., & Stritzke, W. G. K. (1997). Attributions about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alcohol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4), 279-30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7.tb00633.x>
- Viki, G. T., Abrams, D., & Masser, B. (2004). Evaluating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in perpetrator blame and recommended sentence length. *Law and Human Behavior*, 28(3), 295-303. <https://doi.org/10.1023/B:LAHU.0000029140.72880.69>
- Weiner, B. (1986). Attribution, emotion, and ac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281-312). Guilford Press.
- Wenger, A. A., & Bornstein, B. H. (2006). The effects of victim's substance use and relationship closeness on mock jurors' judgments in an acquaintance rape case. *Sex Roles*, 54, 547-555. <https://doi.org/10.1007/s11199-006-9014-2>
- Wilson, L. C., Farley, A., & Horton, S. F. (2022). The impact of victim blaming and locus of control on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female sexual assault survivors. *Violence Against Women*, 28(15-16), 3785-3800. <https://doi.org/10.1177/10778012221088304>
- Workman, J. E., & Freeburg, E. W. (1999). An examination of date rape, victim dress, and perceiver variables within the context of attribution theory.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1(3-4), 261-277. <https://doi.org/10.1023/A:1018858313267>

1차원고접수 : 2025. 05. 30.  
심사통과접수 : 2025. 07. 01.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 Examining the Double Standard of Alcohol Use Based on Victim Gender in Sexual Assault Cases

Hyeji Jang

Eunkyung Jo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The double standard of alcohol use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victims who consume alcohol are blamed more harshly, whereas perpetrators who consume alcohol are blamed les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xistence of this double standard in sexual assault cases by investigating how alcohol consumption by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as well as the victim's gender, influences blame attribution. A total of 136 adults aged 19 and older participated in an experiment where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read a sexual assault scenario systematically manipulated by three variables: victim alcohol consumption(yes vs. no), perpetrator alcohol consumption(yes vs. no), and victim gender(male vs. female). Participants then levels of blame, responsibility, controllability, and stability for both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victims who had consumed alcohol were blamed more and were perceived as more stable than sober victims. Conversely, intoxicated perpetrators were held less responsible and perceived as having less control over their actions, supporting the presence of a double standard of alcohol use.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also found between victim alcohol consumption and victim gender. Specifically, intoxicated female victims were blamed more than sober female victims,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blame judgments for male victims based on alcohol consum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pretations and gendered stereotypes surrounding alcohol use may influence blame attributions,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of a double standard.

*Key words* : *The Double Standard of Alcohol Use, Blame Attribution, Sexual Assault, Alcohol Consumption, Victim Gender*

부 록

---

시나리오

---

피고인 A(가해자, 남, 30세)와 피해자 B(여/남, 27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3. 11. 24. 23:15경 XX시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하다가 만취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 B는 같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 술에 취한 피고인 A는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여자/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여자/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을 화장실 문 옆쪽 벽으로 밀며 피해자 B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술을 마신 피해자 B가 이에 저항을 잘 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어깨를 잡아 벽을 바라보게 하고 피해자 B의 목을 빨며 몸을 강제로 눌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항문에 넣어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

주. 밑줄 표시된 내용은 독립변인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 것임.